

목회자의 프락



이동균 목사
해성교회 담임

푸른 숲이 여름의 성장을 마무리하고 가을 옷을 입으며 한다. 이 숲은 사람의 삶을 품어 주는 환경이다. 마을 뒤의 산은 바람을 막아 주고, 골짜기의 물은 논밭과 집으로 흘러왔다. 사람들은 산에서 땀을 흘리고 집을 지을 나무를 구했다. 숲에 기대어 살면서 계절을 배우고, 살아갈 길을 찾았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푸른 산에는 앞선 세대의 수고와 삶의 기억이 함께 서 있다.

그 가운데 소나무는 한국인의 일생과 가까이 있었다. 아기가 태어난 집에서는 굴뚝에 솔가지를 꽂아 새 생명을 맞았다. 솔잎을 깔아 송편을 찌고, 솔가지는 아궁이의 불이 되었다. 소나무로 기둥과 서까래를 세우고 가구를 만들었다. 생을 마치면 소나무로 만든 관에 몸을 누이기도 했다. 태어날에서 죽을 때까지 소나무는 우리 곁을 지켰다. 숲은

이어지기 어렵다.

우리 숲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늘의 생활에 맞는 숲 문화를 길러야 한다. 숲에서 쉬고 배우며, 필요한 자원을 얻고 다시 자랄 시간을 존중하는 문화이다. 가꾸어야 할 곳과 자연의 회복을 기다려야 할 곳을 살피는 지혜도 필요하다. 모든 숲을 같은 모습으로 만들 수는 없다. 그곳의 나무와 흙, 물결과 생명들을 알아 가는 일이 먼저다.

현대인은 숲에서 힘을 찾는다. 바쁜 일상에 지친 몸을 움직이고, 복잡한 마음을 가라앉히며 숲길을 걷는다. 가까운 숲에서 계절의 변화를 만날 수 있도록 산책과 휴양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 산림경영과 재해 대응에 필요한 일도도 적절히 갖추어야 한다. 다만 일도와 신축성은 목적과 이용 방식이 다르다. 길을 낼 때에는 경사와 물길을 살피고 훼손을 줄여야 한다. 사람이 숲에 가까워지는 길이 숲을 오래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

아이들에게도 숲을 만날 시간을 주어야 한다. 숲 유치원과 학교의 생태교육에서 흙을 만지고 나뭇잎을 살펴보고 작은 생명들과 친숙하게 하자. 나무의 이름을 배우고, 지닌 채 만난 나무가 울대 얼마나 자랐는지 찾아보는 경험도 소중하다. 어른들은 마을 숲의 옛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다. 이대에서 땀을 흘리고, 어느 나무 아래에서 쉬었으며, 어떤 곳을 아끼고 지켰는지 전해 주자. 그 기억이 아이들의 경험과 만날 때 숲의 문화는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

숲을 지키는 비용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2023년 신주 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림의 약 65%가 사

숲을 가꾸는 마음도 물려주어야 한다

생명이었고 문화였다.

그러나 오늘 소나무 숲이 아프다. 소나무재선충병으로 푸르던 나무들이 붉게 마르고 죽어간다. 오랫동안 마을을 둘러싸고 있던 풍경이 달라진다. 나무 한 그루의 죽음에는 그 나무에 기대어 살아온 생명들의 자리도 흔들린다.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는 이 숲을 어떻게 지키고, 다음 세대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묻게 된다.

생명이 바뀌면서 숲과 사람의 관계도 달라졌다. 이제 아궁이에 솔가지를 넣을 일도, 집을 지으려고 뿔뿔히 나무를 살피 일도 드물다. 송이와 산나물을 얻는 이들은 있지만, 많은 사람에게 숲은 멀리서 바라보는 풍경이 되었다. 숲은 여전히 공기와 물을 맑게 하고 탄소를 흡수하며 수많은 생명을 품는다. 그 혜택이 일상에서 잘 보이지 않을 뿐이다. 숲에서 얻는 것을 잊으면 숲을 돌볼 책임도 멀어지기 쉽다.

최근 숲을 가꾸는 문화는 다른 글을 접하면서 우리 산의 미래를 생각했다. 나무를 심는 기술과 목재의 값만으로 숲의 내일을 준비할 수 있을까. 숲을 알고, 일과 배우고, 돌보는 수고를 존중하는 마음이 함께 이어져야 한다. 나 역시 고향의 산림을 어떻게 가꾸어 갈지 공부하는 사람이다. 푸른 산을 바라보는 마음과 그 산을 책임지고 돌보는 일 사이에는 생각보다 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숲을 가꾸려면 사람의 손과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산촌은 늙어 가고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렵다. 경사가 가파르고 절근이 어려운 산에서는 작업과 운반에 더 많은 비용이 든다. 장비를 쓰는 일도 쉽지 않다. 나무를 오랫동안 길러 수확해도 벌인 수고에 걸맞은 소득을 얻지 못할 수 있다. 산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 이 모든 부담을 감당하라고 할 수는 없다. 돌보는 사람이 지지만 숲을 가꾸는 일도

유리하다. 소유는 개인에게 있어도 맑은 공기와 물, 아름다운 경관의 혜택은 많은 사람이 누린다. 신주에게 땅장의 이익이 적다고 해서 숲의 가치까지 적은 것은 아니다. 공익을 위해 숲을 보전하고 가꾸는 사람들의 수고에 사회가 정당한 보상을 나누어야 한다. 실제 돌봄과 보전의 성과에 맞는 지원을 넓혀야 한다. 그래야 젊은 세대도 숲을 돌보는 일을 자신의 삶으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에게 숲은 하나님의 창조세계이다. 창세기 2장 15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전한다. 가꾸는 일과 지키는 일이 함께 멀어졌다. 우리는 땅에서 필요한 것을 얻으며, 그 땅의 생명이 이어지도록 돌볼 책임을 받았다. 창조의 선물을 누리는 감사에는 그것을 보전하는 수고가 따라야 한다.

교회도 이 책임을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다. 아이들과 가까운 숲을 찾아 창조의 생명을 살피고, 지역에서 숲을 가꾸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자. 나무를 심었다면 이후에 어떻게 자라는지 함께 관심을 기울이자. 종이와 목재를 아껴 쓰고, 숲에서 일하는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자. 창조세계를 사랑한다는 고백은 이런 작은 실천 속에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자란다.

숲은 과거로부터 받은 선물이다. 오늘 그 가치를 알고,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지금 심은 나무의 큰 그늘을 내가 다 누리진 못할 수도 있다. 그래도 누군가는 그 아래에서 쉬고, 아이들은 그 숲에서 새로운 삶의 기억을 만들 것이다. 그것으로 나무를 심고 돌볼 이유는 충분하다. 기후 위기를 넘어서는 길에도 이러한 책임이 필요하다. 푸른 숲과 함께 숲을 아끼고 가꾸는 마음을 물려주자. 우리가 받은 선물에 오늘을 돌볼 줄을 다하여,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겨 주자.

의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주의 추천음반

아티스트 : 다윗의 노래 편집부 | 기획 : 다윗의 노래 (한국)



Hillsong Y&F III (Remix Ver CD) [합송 유스 앤 프리 (리믹스 버전)]

재구성하고 리믹스해서 기존의 영엔프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심혈을 기울인 앨범이다. 11곡이 수록된 이 앨범에서 보컬리스트 로라 토그스 (Laura Toggs)는 이 앨범에 대해서 "깊은 헌신과 진정한 도전의 경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번 Reimagined/Remix 앨범은 영엔프의 "Youth Revival (2016)" 이후 3년만의 Y&F의 음악과 체험을 반영하여 그들의 성숙함과 깊이를 담아 낸 리믹스 앨범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영엔프는 힐송 워십과 유나이티드의 이은 힐송음악의 세 번째 핵심음악 사역이다. 첫 번째 앨범은 2013년 "We are Young & Free"였고 두 번째 앨범은 2016년의 "Youth Revival" 앨범이다. 두 앨범 다 빌보드지 탑 크리스찬/가수 앨범 차트에 올랐으며, EDM과 POP의 탁월한 사운드로 평가 받았다. 다섯 개의 MTV 라디오 싱글 뿐만 아니라, 팝 컬처 플랫폼의 표준으로 인정받았다. 영엔프는 전 세계를 돌며 글로벌 워십 이벤트를 지속하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청년들을 불러모으고 있다. 2018년 한국에도 다녀간 바 있는 영엔프의 음악과 워십을 통해 국내 교회의 청년들에게도 아름다운 영향력이 펼쳐 나가기 바란다.

Gospel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일은 누구에게나 언젠가 닥칠 수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막상 경험하게 되면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필자 역시 얼마 전 사랑하는 장인어른을 하늘나라로 보내드리며 깊은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 순간은 단순히 개인적인 아픔을 넘어, 인생의 끝과 영원의 시작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우리의 마음은 쉽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절망이 먼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이 이 찬송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믿음입니다.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는 마음이 새롭게 일어납니다.

2.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 새찬송가 94장

작사: 리아 F. 밀러 (Rhea F. Miller, 1894-1966)

작곡: 조지 비벌리 셰이 (George Beverly Shea, 1909-2013)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한 문장만으로도 이 찬송의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세상의 부귀와 명예,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바랄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장례의 자리에서 부르는 소망의 찬송

나라,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번에는 장례와 주도의 자리에서 특별한 마음에 와닿는 세 곡을 나누고자 합니다.

1.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찬송가 338장

작사: 세라 플라워 아담스 (Sarah Flower Adams, 1805-1848)

작곡: 로웰 메이슨 (Lowell Mason, 1792-1872)

이 찬송은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별의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야곱은 외롭고 두려운 밤길에서 불을 베게 삼아 잠을 청했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집자가 짐 같은 고생" 가운데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찬송은 장례의 자리에서 더욱 깊은 울림을 줍니다. "천상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의 되나 은혜로다"라는 가사는, 죽음의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고백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나면 우리가 평소 애용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덧없고 작은지 깨닫게 됩니다. 재산도, 명예도, 성공도 사랑하는 사람의 빈자리를 채워 줄 수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 가장 본질적인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내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이 찬송은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장례식에서 이 찬송을 부를 때, 남겨진 이들은 다시금 신앙의 중심을 붙잡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찬송 속에 담겨 있습니다.

3. 저 높은 곳을 향하여 - 새찬송가 491장

작사: 존슨 오트먼 주니어 (Johnson Oatman Jr., 1856-1922)

작곡: 찰스 H. 가브리엘 (Charles H. Gabriel, 1856-1932)

"저 높은 곳을 향하여"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노래하는 소망의 찬송입니다. 인생의 종과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문장을 바라보게 합니다. 장례식에서는 떠나간 사람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은 자꾸만 이 땅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눈을 들어 저 높은 곳을 바라보게 합니다.

장례는 끝을 바라보는 자리이면서 동시에 영원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는 슬픔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우리의 삶 역시 언젠가 그곳을 향해 가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슬픔을 억지로 감추게 하는 노래가 아니라, 눈물 가운데서도 다시 고개를 들게 하는 소망의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 아픔은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이별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마음 한편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찬송은 슬픔이 없다는 고백이 아니라, 슬픔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의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이 찬송들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모든 이들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가 되고,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작은 빛이 됩니다. 장례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영원을 향한 소망의 자리임을 다시 확인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이 땅의 순례길을 마치고 될 것입니다. 그날까지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고, 때로는 먼저 떠나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뒤에 남기도 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노래하는 찬송은 언제나 우리의 눈물 속에서 소망을 일깨워 줍니다.



이동영
미션리 편집자

의무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2026학년도 총회신학 신·편입생 모집

본 총회신학은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인준 정통 보수주의 신학연구원입니다. 정교도적 개혁주의 보수신학의 요람으로서 신학과정을 이수하여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66권 강의를 중심으로 말씀의 기초에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여러분의 사역에 성실한 길잡이가 되도록 본 총회신학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정신 이사장

대표전화

062)511-2491

010-3161-2491

http://www.gchongsin.com

원서교부 및 접수처

원서교부 : 광주, 전주, 순천 총회신학

원서접수 : 수시 접수

*전형료는 없음

총회신학의 장점

최고의 교수진이 있습니다.

남·여 목사인수 / 각종 장학혜택
교회개혁 및 설립인허, 법인등록 등
각종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입학문의

광주 062)511-2491

전주 063)272-2491

순천 061)751-2491

수양관(곡성) 061)362-2491